지역 소식통

고창군 개인택시조합, 사무실 개소

고창군 개인택시조합이 23일 사무실 개소식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박우정 군수, 김재중 고창군 개인택시조합장, 박상억 전라북도 개인택시조합장 등 관내 개인택시 조합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그간 고창군 개인택시조합은 1994년 설립된 이후 마땅한 사무실 없이 고창읍 모주유소 내 부지를 임차해 열악한 환경 속에서 활동해 왔다.

고창군 개인택시조합 사무실 신축은 조합원들의 오랜 숙원이자 현안사업으로, 이번에 고창읍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앞 부지를 확보해 건축면적 36㎡, 철골조로 건축하여 이전함으로써 조합원들의 편안한 휴식공간인 사무실을 마련하게 됐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조합원들의 오랜 염원 끝에 문을 연 사무실이 내 집처럼 편안한 공간으로 사랑받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광객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접하는 조합원들이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고창을 널리 알리는 파수꾼 역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부안군 주민자치협의회 창립총회

부안군 주민자치협의회 창립총회가 23일 부안읍 행복한 웨딩홀에서 김옥길 부안군 주민자치협의회장과 정상호 총무, 김양곤·신현철·김갑곤·이영식 자문위원, 각 읍면 주민자치위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창립총회는 경과보고와 정관승인, 임원선출, 사업계획 및 예산안 확정 등으로 진행됐다.

김옥길 부안군 주민자치협의회장은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건전한 지역공동체 형성에 앞장서 왔다"며 "이번 부안군 주민자치협의회 창립을 계기로 각 읍면 주민자치위원들의 힘을 합쳐 한 단계 발전하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김종규 부안군수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고 지역현안도 해결하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부안군 주민자치협의회 창립을 계기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부안=이옥수기자

구절초테마공원

지역수요맞춤형 공모사업 선정

28억원 투입 2020년까지 기반시설 구축

구절초테마공원 사계절 활성화 조성사업이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한 지역수요맞춤형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부터 2020년까지 공모사업 선정으로 확보한 국비 20억원에 시비 8억원을 더한 총 28억원을 들여 구절초테마공원 기반시설 공사에 나선다.

레포츠시설인 짚라인(Zipline)을 설치하고 도심을 벗어나 자연을 느끼며 힐링할 수 있는 캠핑파크나 사계절 정원 등을 조성한다.

이를 통해 구절초테마공원의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확충함으로써 연중 관광객이 찾는 명품 관광지로서의 위상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시는 "전국 대표축제로 자리잡은 정읍구절초 축제의 주요 무대이기도 한 구절초테마공원은 전국에서 연간 60만이 찾는 관광 명소다"며 "이번 사업 추진을 통해 구절초 테마공원 방문객 100만 시대를 열어 지역민에게는 소득 증대를 관광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관련해 김생기 시장도 "성공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해서 구절초테마공원은 물론 옥정호 등 주변 관광자원을 누구나 편안하게 찾아 즐길 수 있고, 서정과 감동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정읍의 대표 명품 관광지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사업은 주민참여의 상향식 접근방식을 토대로 지자체 간 아이디어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공모방식으로 진행된 사업이다. 그간 추진돼온 성장촉진지역의 대규모 SOC사업 위주에서 탈피, 기반시설과 문화 콘텐츠 등의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 공모사업에는 전국 성장촉진지역 70개 시·군에서 신청했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개발사업공모선정위원회에서 서면·현장평가와 사업발표회를 거쳐 구절초테마공원 사계절 활성화 조성 사업을 비롯 모두 19개소를 최종 선정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친환경쌀 생산 우렁이농법 '호응'

고창 해리농협, 357농가 837ha까지 확대

고창 해리농협이 친환경쌀 생산을 위해 도입한 우렁이농법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해리농협은 2013년 131농가 381ha에 우렁이농법을 도입하기 시작해 올해 357농가 837ha까지 확대했다. 이는 상하면 지역 쌀 재배면적 중 92%가량에 달한다.

상하면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하고 있는 우렁이농법은 '친환경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주)영광원자력본부'가 2013년부터 원전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시작됐다.

친환경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주)영관원자력본부는 친환경쌀을 생산하고자 우렁이 구입비용으로 2013년 1억600만원을 지원하기 시작해 올해 2억원까지 지원금을 늘려왔다.

사업 첫해부터 6만6116㎡(2만평)에서 우렁이농법으로 친환경쌀을 생산하는 조성기씨는 "영농자재비와 인건비 등 경영비 절감효과가 큰데다 참여농가는 안전하고 건강한 고품질쌀을 생산한다는 자부심이 대단하다"고 자랑했다.

해리농협은 차별화된 친환경쌀 판매전략으로 우렁이농법 참여 농가를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김갑선 조합장은 "쌀 소비부진으로 인한 쌀값 하락에 대처하고자 친환경 우렁이농법으로 생산한 고품질쌀을 차별화하고 특화해 농가소득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고창군, 풍물소리 테마파크 '인기'

농악 역사 살펴볼 수 있어

전북 무형문화재 제7-6호 호남우도 대표농악인 고창농악의 전시와 체험공연 기능을 관광자원화하는 풍물소리테마파크가 지난 2016년 10월 15일 개관 이후 전통문화를 익히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다.

풍물소리테마파크는 성송면 향산1길 106번지에 지난 2014년부터 사업비 43억원을 들여 연면적 1947㎡ 규모로 대공연장과 풍물전시관, 세미나실, 쉼터와 주차장 등을 조성했다.

건물 외관은 우리민족 전통 문화예술인 농악과 일체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한옥 이미지로 개선해 규모나 시설에서 전국 최고 수준으로 건립됐으며, 300여 명이 관람할 수 있는 대공연장에는 입체영상과 음향 조명시설을 갖춰 농악을 쉽게 이해하고 고창농악의 역사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전통문화와 농악에 관심 있는 군민과 관광객들은 풍물소리테마파크에서 고창을 넘어 세계 공연문화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고창농악의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어 찾아오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풍물소리테마파크에서는 고창농악전수와 상설공연, 기획공연 등 다양한 교육과 체험프로그램이 접목돼 보다 쾌적한 환경 속에 배우고 체험할 수 있게 되어 개관 이후 대학생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합숙전수에 430여명, 읍면 농악단과 학생,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일반전수 프로그램에 530여명이 참여했다.

군 관계자는 "소중한 우리 전통문화인 고창농악을 계승·발전시키면서 그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며 "쾌적 한 환경 속에서 우리 전통의 진수를 느낄 수 있도록 하면서 품격 높은 문화예술 고창을 이뤄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부안군, 귀농귀촌 100인과 함께 발굴하는 정책토론회 가져

부안군은 귀농귀촌인 100과 함께 발굴하는 정책토론회를 지난 22일 부안예술회관 다목적 홀에서 개최됐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귀농귀촌 후 현장에서 느끼는 행정의 사각지대 해소와 신규 사업 발굴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총 3시간이 소요된 토론회는 1부로 두시간 동안 난상토론을 벌이고 도출된 결과물을 정리한 뒤 한 시간 동안 주제발표를 하는 방식으로 실시됐다.

토론회 결과 귀농귀촌 후 좋았던 점 43건, 아쉬웠던 점 37건, 타 시군 벤치마킹 사례 16건, 부안군 시행 희망 정책 41건 등을 발굴하고 분임발표를 통해 군정에 제안했다.

김종규 부안군수는 "올해는 1500세대 이상을 유치시켜 대한민국에서 귀농귀촌 하기 제일 좋은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기자

부안군-의료법인 서봉재단 혜성병원

노인요양병원 민간위탁 협약 체결

부안군과 의료법인 서봉재단 혜성병원이 23일 부안군 노인요양병원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김종규 부안군수와 주세혁 혜성병원장, 양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협약에 따라 혜성병원은 오는 9월 3일부터 2022년 9월 2일까지 5년 간 부안군 노인요양병원을 운영하게 된다.

이번 민간위탁은 오는 9월 2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방식을 결정했으며 부안 군의회 동의와 공개모집, 민간위탁기간 적격심사위원회 심의 등 적법한 행정절차를 통해 혜성병원을 선정했다.

한편 부안군 노인요양병원은 지난 2007년 개원해 연면적 2069㎡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316종의 의료장비와 113개 병상을 갖추고 있으며 치매와 중풍 등 노인성 질환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는 물론 소외계층의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부안=이옥수기자

정읍시 단풍미인쇼핑몰, 경쟁력 강화 워크숍 진행

정읍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단풍미인쇼핑몰(대표 김생기)에서 지난 22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가졌다.

시는 개점 6년 차를 맞아 그간 단풍미인쇼핑몰의 운영을 평가하고 입점업체 간 소통과 운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 향후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모색하기 위해 워크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워크숍에서는 ㈜ 메이크샵 이정주 총괄담당이 온라인 마케팅을 주제로 네이버 모두, 인스타그램 등 최근 들어 각광받는 SNS 모바일 마케팅기법과 전자결재 연동실습 등을 진행했다.

또한 용인송담대 김명란 교수로가 단풍미인쇼핑몰의 미래 비전을 주제로 입점업체 간 소통과 단풍미인쇼핑몰의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모바일 홈페이지 등 다양한 온라인 기법을 활용한 효과적인 홍보로 소비자와 직접 소통하는 편리성을 갖춘 오픈마켓 기능을 알게 됐다"며 지속적인 온라인 마케팅 교육을 실시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단풍미인쇼핑몰은 매주 1회 특가 이벤트 진행과 함께 전 상품을 우체국택배를 이용해 무료 배송해주고 있고, 회원가입 구매고객에게 판매 금액의 2%를 적립금으로 돌려준다.

상품 주문은 '단풍미인쇼핑몰'(http://danpoongmall.jeongeup.go.kr)로 접속하거나 무료전화(☎080.535-4345), ☎063.532-4345 또는 스마트폰(m.danpoongmall.com)으로도 가능하다.

/정읍=김대환기자